



고단한 삶 위에 세운 어린이 천국

탄생 100주년 맞아 돌아보는 소파 방정환의 삶과 책

조대현 · 아동문학가

1923년 겨울, 아직 추위도 채 가시지 않은 종로거리 한 모퉁이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젊은이가 있었다. 작달막한 키에 뚱뚱한 체구. 한참 신명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던 젊은이는 지고온 룯색에서 알뜰한 잡지를 꺼내 아이들에게 한권씩 나눠 주고 구호처럼 외쳤다.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이 젊은이가 이 땅에 첫 아동잡지 《어린이》를 탄생시킨 소파 방정환이요, 그가 땀과 머리카락에 나뉜 잡지가 《어린이》 창간호였다. 《어린이》는 당시 이땅의 천대받는 소년소녀들만큼이나 기구한 운명(?)을 지고 태어났다. 당시 민족지사들의 본거지였던 천도교로부터 어렵사리 재정지원을 받아 만든 잡지였지만 구독자가 없어 "엽서로 신청만 하면 거저 나눠 준다"는 광고까지 냈건만 그래도 사람이 없어 소파 자신이 지고 다니며 나눠줘야 할 형편이었다.

불우한 어린시절

방정환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1899년 11월 9일, 서울 아주개(현 종로구 당주동)가 그의 출생지다. 그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아버지가 미곡상과 어물전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유복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가 10살 때 작은 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모든 재산이 빚보증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때부터 소년 방정환은 자루를 메고 친척집으로 식량을 꾸러 다니는 수모를 겪었다. 이때의 참담했던 심경을 그는 뒷날 이렇게 술회했다.

〈소파 방정환의 책〉

책이름	종류	펴낸곳	발간년도
사랑의 선물	번안동화	개벽사	1922
소파전집		박문서관	1940
소파 동화독본(전2권)		조선아동문화협회	1947
동생을 찾으러	아동소설	글벗집	1954
칠칠단의 비밀	아동소설	글벗집	1954
방정환아동문학독본	전래동화	유유문화사	1962
소파 아동문학전집(전5권)		삼도사	1965
소파 방정환문학전집(전8권)		문천사	1974

"쌀을 꾸러가기가 죽기보다도 싫었다. 그리고 어른이 잘 못해서 그렇게 된 일에 왜 어린이를 내세워 그 고생을 시키는지 울분이 치솟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때 가슴에 사무쳤던 설움이 뒷날 어린이운동에 투신하게 된 직접적 동기가 됐는지 모를 일이다.

그는 친척의 도움으로 겨우 소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취업하기 가장 좋았던 선린상업학교에 진학했으나 그나마 졸업을 못하고 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 하루 20전을 받고 서류 베끼는 직업으로 가계를 도왔다.

그러다가 그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은 19살 되던 1917년 봄이었다. 그때 집안이 모두 천도교를 믿고 있어서 방정환도 일찍부터 천도교회관에 드나들며 청년회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3대 교주 손병희의 셋째 사위가 된 것이다. 뼈빠 마른 몸에 허약체질을 면치 못했던 그는 손병희의 사위가 되면서 보약을 먹어 사전에 전해지는 것처럼 뚱뚱한 체구가 되고 돈도 여유 있게 쓰게 됐으며 장인이 경영하는 보성전문학교에도 다니게 됐다.

이때부터 그에게는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가로서의 기질이 서서히 나타났다. 유광열 등 열혈청년들과 더불어 청년구락부라는 지하단체를 조직하고 《신청년》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는가 하면, 마해송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잡지 《녹성(綠星)》을 편집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3·1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청년구락부 회원들을 동원해 독립선언서를 돌리는 한편, 선배가 발행하다가 중단한 《독립신문》을 맡아 등사판으로 3·1운동 뒷소식을 찍어 돌리기도 했다. 그로 인해 종로경찰서에 끌려가 심한 옥고를 치렀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를 몸소 겪으면서 그는 새삼스레 깨달은 게 있었다. 나라가 독립하자면 한두 번의 만세운동으로는 어렵고, 좀더 긴 안목으로 어린이를



소파 방정환(1899~1931).

교육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자각이었다. 불우했던 어린시절 식량을 꾸러 다니면서 느꼈던 울분이 작은 각성이라면, 3·1만세 운동 뒤에 깨달은 자각은 좀더 성숙된 대승적 자각이었던 셈이다. 이런 자각이 들자 그는 일본유학 길에 올랐다.

《사랑의 선물》과 색동회

3·1운동이 일어났던 그해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에 적을 둔 방정환은 아동문학과 아동심리학을 두루 섭렵했다. 그리고 일본 아이들이 근대화된 가정에서 천진난만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유교적 인습의 굴레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과, 감성을 해방시켜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을 줄 아는' 어린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를 어른의 부속물쯤으로 여겼던 시절이라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자녀를 돈 많은 집에 심부름꾼으로 파는 일이 예사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애어른'으로 자신을 억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밝은 웃음을 찾아주기 위해 처음 손을 댄 것이 해외 명작동화를 번역해 읽히자는 것이었는데, 그가 차가운 하숙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자한자 옮긴 것이 우리나라의 첫 동화집 《사랑의 선물》(1922)이었다. 이 책은 비록 외국작품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친 번안동화집이었지만 우리나라에 참다운 현대동화를 처음 소개했다는 점에서 아동문학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이것을 시작으로 그는 수많은 우리 전래동화를 개작해 발표했지만 실상 그가 생전에 낸 작품집은 이것 하나뿐이다.

그와 함께 어린이운동을 효과적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 만든 단체가 '색동회'(1923). 이 단체는 그가 뒷날 수없이 벌인 어린이 문화운동의 모태가 되었으며, 잡지 《어린이》도 이 단체 동인들의 주도로 1934년 폐간되기까지 12년간 122호라는, 당시로서는 기적적인 장수를 누릴 수 있었다.

그가 귀국해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불과 10여년 사이에 이땅의 어린이를 위해 벌인 활동은 모두가 활화산 같은 정열로 이뤄진 것이었다. 우리말에 '늙은이', '젊은이'라는 말은 있어도 소년소녀를 가리키는 말이 없음을 통감하고 새롭게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든지,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해(1923) 아동애호의 기풍을 불러일으키고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동화구연대회와 강연회를 열어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를 기린 일들은 모두 독립지사적인 열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어머니를 위한 잡지 《신여성》과, 어린이들이 자라서 읽을 청소년 잡지 《학생》, 그리고 아버지가 읽을 《별건곤(別乾坤)》도 직접 창간해 편집을 맡았으니 이것도 모두 어린이운동의 일환이었다. 어린이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들을 키우는 부모와 청소년 세대가 새로운 시대의 조류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는 무리한 일에 거침없이 손을 댔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과로와 가중되는 빚더미 앞에서 그의 뜨거운 정열도 날개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1931년 7월 23일 그가 신장성 고혈압으로 눈을 감으면서 남긴 한마디는 이런 것이었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오늘의 어린이천국은 바로 그의 고단한 삶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제9회 '방정환문학상' 시상식이 오는 5월5일 오후 3시 서울 동숭동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린다. 아동문학평론사(대표 이재철)가 주최해온 방정환문학상의 올해 수상자는 ▲동화:조장희 <해를 삼킨 이무기> ▲동시:문삼석 <2화년을 위한 동시집> ▲평론:김용희 <동심의 숲에서 길찾기>.